

## 인사말씀



「**늘푸름 홍천한우**」 농가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축년(己丑年) 새해를 맞이하여 회원여러분의 가정마다 만복이 깃드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사료 값 인상과 한우가격의 하락 등으로 인해서 열심히 노력하신 회원여러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즐거운 일은 소를 키워서 농가의 소득을 향상시키는 목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조건 속에서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어려운 한해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토록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정성으로 한우를 사육하신 회원농가에서는 좋은 등급을 판정받아 소득을 향상시키는 회원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여건이라고 해도 노력하고 정성을 드리면 우리의 한우는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결과로 보답해 주고 있습니다.

홍천한우회원 여러분!

지난해 우리에게는 어려운 일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늘푸름 홍천한우**」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튼튼하게 마련한 한해이었다고 자부할 수가 있습니다. 회원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있겠지만 지난해 우리는 「전국 한우인의 날」 행사를 회원여러분의 단합된 모습으로 훌륭하게 치렀으며 「전국 한우능력 평가대회」에서는 서석면 정량리의 김인환 회원께서 「종합우수」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었으며 같은 마을의 이창복 회원께서는 「육량우수」라는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2008년은 「**늘푸름 홍천한우**」가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한우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입증하는 한 해이기도 하였습니다. 축산물 등급판정소에서 실시하는 육질판정결과에서 내촌면의 공명근 회원께서 「육질우수」라는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아울러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늘푸름 홍천한우의 「지리적 표시제 인증」을 받았으며 생산농가 30농가가 HACCP인증을 받는 등 전국 어느 브랜드에서도 하지 못한 일을 우리가 해냈습니다. 이는 회원농가중 개개인에게 직접적으로 커다란 혜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모든 일들이 「늘푸름 홍천 한우」의 명성을 전국 방방곡곡에 널리 알리는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구나 2009년 새해에는 전국 지방자치브랜드 축산물부문 「대상」의 명예도 우리 홍천군이 차지하였습니다.

2009년도는 소띠의 해입니다. 이제까지의 어려움이 모두 사라지고 회원여러분들이 하는 사업이나 가정이나 모두 좋은 일들만 가득하실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황소걸음과 같이 한 걸음씩 열심히 노력을 하면 안 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황소의 뚝심으로 홍천한우농가가 합심하여 한우산업의 성공신화를 만들어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2009년 새해아침

(주)늘푸름 홍천한우 대표이사 조 남 응

## 늘푸름 흥천한우 워크숍 개최

늘푸름 흥천한우를 흥천군의 지역특화산업육성 및 핵심전략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2008년도에 「늘푸름 흥천한우 클러스터사업단」을 신설하였다.

그동안 사업단의 업무소개를 위한교육, 읍·면별 순회교육도 실시하였는데 이번에는 사업결과 보고를 비롯하여 다양한 테마를 가지고 2008년 12월 19일 흥천관광호텔에서 한우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워크숍의 교육 및 테마는

- 축산물 유통시장 변화 및 쇠고기 시장동향 및 전망
  - 축산유통연구소 : 정규성 소장
- 늘푸름 흥천한우 클러스터 사업보고 및 선진축산 벤치마킹보고
  - 클러스터사업단 : 이종현 단장
- 한우농가 성공사례
  - 김인환, 공명근
- 늘푸름 흥천한우 우량 암소유전능력 평가
  - 한경대학교 전광주 교수

등 이었다. 마지막으로 늘푸름 흥천한우 발전방향 토론회에서 좌장인 한경대학교 장경만 교수를 비롯하여, 김선균 과장, 사청환 상임이사, 조남웅 회장, 정용호 부장을 토론자로 모신 가운데 진행되었다.



워크숍에 참석하여 격려의 말씀을 하시는 노승철 흥천군수님

또한 ‘늘푸름 흥천한우의 유전능력평가’ 를 주제로 국립 한경대학교 전광주 교수는 “흥천 암소의 개량속도가 정해질 것이며 우리의 소득을 한 단계 올려놓을지도 모른다.”며 사업의 장점을 설명했다.



열심히 설명하는 전광주 교수

한편 마지막 순서로 진행된 ‘늘푸름 흥천한우 발전방향’ 토론회에서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져 생산비 절감방안으로 TMR 사료개발 등으로 사료비를 절감하며 현재의 사육기반이 미흡하기 때문에 번식기반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군청에서는 농가들이 필요로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적극 개발해 한우산업정책에 반영하고 흥천한우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늘푸름 흥천한우 발전방향’ 토론회 장면.  
 사진 왼쪽부터 장경만 교수(한경대학교), 신종서 교수(강원대학교), 사창환 상임이사(흥천축협), 김선균 농정축산과장(흥천군), 조남웅 회장(흥천군한우협회), 정용호 부장(종축개량협회)

## 영농교육 내용 소개 및 사진

홍천군 농정축산과는 한우농가를 대상으로 2009년 1월 22일 문화예술회관에서 「2009새기술실용화교육」을 개최하였다.

이 교육은 축산농가에게 가장 중요한 질병과 예방에 대하여 질병의 개념, 송아지 질병, 비육 및 번식우의 주된 질병, 전염성 질병, 소 내부 기생충 구제 및 예방, 우군의 질병발생 예방을 위한 조치 등 한우를 사육하는데 번식률을 높일 수 있고, 폐사의 원인을 줄일 수 있는 알찬 내용들로 진행되었다.



클러스터사업단장의 사업 설명회 모습

사업단장(이종현)은 그간 클러스터 사업단 출범이래 해왔던 일 앞으로 해야 할 일들에 대하여 일부 농가들이 알고 있지만, 모르는 농가들을 위하여 다시 한번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설명회를 가졌다.

홍천군 한우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홍천군 한우 사육농가가 단합하여 번식기반을 확충하고 두수를 늘린다면 늘푸름 홍천한우는 점차적으로 타 브랜드에 비하여 생산이력제(RF-ID), HACCP 및 무항생제, 암소유전능력평가를 기반으로 차별화 전략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명품 프리미엄 브랜드로 늘푸름 홍천한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 “고급육 생산위해 한우 개량 필수 1등급 이상 출현율 83%”

- 벤치마킹 / 흥천한우 화우목장 -



한우협회 조남웅 회장

한우 암소 수태율 99.9%, 1+등급이상 출현율 75%, 1등급 이상 출현율 83%. 이는 강원도 홍천군 남면 화전리 149번지에서 한우 70두를 사육하고 있는 화우축산(대표 조남웅)의 성적표이다.

늘푸름 흥천 한우클러스터사업단 소속 회원 농장이기도 한 화우축산의 이 같은 성적은 결코 우연에서 비롯되지 않았다.

이제는 고급육 생산을 위한 일괄사육과 철저한 개량, 남다른 사양관리의 결과이다.

화우축산의 조남웅 회장은 모두 70두의 사육 한우 중 종빈우 24두가 모두 한국종축개량협회로부터 고등 등록우 등록을 마친 상태이다.

25년 한우 사육 경력을 갖고 있는 조남웅 회장은 거세비육을 시작으로 한우사육에 입문했지만 15년 전부터 안정적인 한우 사육을 위해서는 고급육을 생산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일괄사육을 시작했다. 이는 가축시장에서 근본을 알 수 없는 송아지를 구입해 사육할 경우 고급육 생산에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때부터 한국종축개량협회 회원으로 등록을 한 후 개량을 시작했다. 지금은 우수한 능력을 갖춘 종빈우에 홍천군으로부터 우수한 종모우의 정액을 공급받아 인공수정을 하고 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철저하게 근친교배를 피하고 있어 우수한 능력을 가진 송아지를 생산하고 있다. 특히 우량 송아지 생산을 위해 능력이 떨어지거나 수태율이 저조한 종빈우의 경우 과감히 도태하는 결단을 내리기도 했다.

## 개량 통해 고급육 생산

그 결과 암소의 경우 수태율은 99.9%에 이르고 있으며, 발정이 온 다음 첫 회수정에서 55.% 이상, 2회수정



우사내 전경



우사내 전경



# 2009년 한우기상대

늘푸름 흥천한우 클러스터 사업단  
단장 이종현

## 개황

### 2008년 최악, 2009년 하반기 회복전망

새해는 기축년(己丑年)소띠의 해이며 우리나라의 소는 한우(韓牛)를 의미하기 때문에 12년마다 돌아오는 소의 해를 맞이하여 소를 키우는 농가와 한우산업에 관련된 모든 분들이 좋은 일만 있었으면 참 좋겠다.

2008년 한 해는 다시 되돌아보기도 싫은 해 이었으며 앞으로는 이런 날 들이 영원히 오지 않았으면 바라는 마음이다.

한우산업분야의 악재는 이미 나올 대로 다 나왔으며 더 이상 나쁜 일들이 없을 정도로 소득 면으로 보아도 좋은 일들이 없는 한 해 이었다.

오죽하면 소가 사료를 먹는 것이 아니라 사료가 소를 먹어치우고 있기 때문에 소를 바라보는 눈길도 예전과 사뭇 좋지가 않다.

이러한 영향은 2009년도 하반기부터 점차 좋아지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

날씨로 말하면 흐린 후에 맑은 날이 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 같다.

지금 우리에게 가슴 태우는 일은 하늘 높은 줄도 모르고 있는 사료 가격인데 국제곡물가격은 2009년도 이후에 점차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미국 달러만 좀 더 내려가 준다면 사료 가격은 하락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 다음이 소 가격 하락인데, 송아지 가격은 이미 가격안정제도의 155만원을 밑돌고 있어서 더 이상 내려갈 것으로는 보여지지 않는다.

실제 97~98년도 IMF시절 때에도 젖소 초유 폐기 한 마리에 5만원~10만원 할 때가 가장 바닥이었으며 2008년에도 송아지 가격으로 친다면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바닥이라고 볼 수가 있다.

비록 조금씩이기는 하지만 2008년 8월 이후부터 오르내림을 반복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2003년 이후 미국에서 발생한 BSE(광우병)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이 금지되고 있다가 2006년 10월 이후에 수입을 재개하고 있으나 2007년도에 14,630t, 2008년 11월 현재 47,727t 등으로 아직까지는 호주산 수입육이 더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한·미 FTA의 비준 동의를 국회에서 의결되면 향후 15년간 (2024년도까지) 40%의 관세가 점점 낮아지게 될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오히려 육우고기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한우 고급육은 상대적으로 하락의 폭이 적은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는 국제 원유 가격, 사료원료가격이 점차 안정되어 가고 더구나 2008년 12월 22일부터 모든 한우에 대한 생산이력제도, 2009년 6월부터 유통 이력제까지 활성화가 되며 음식점 위산지표시제도가 확실하게 시행된다면 한우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가 좀 더 높아지리라 예상된다.

## 송아지 생산과 가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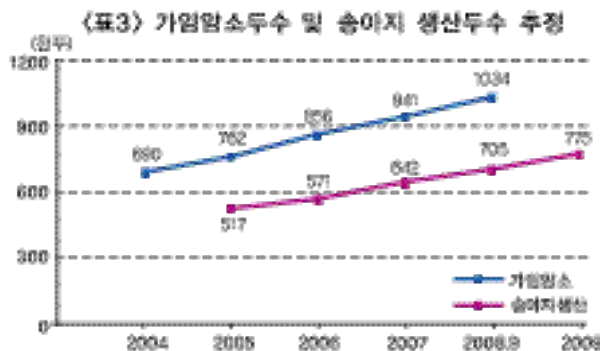
### 가격 생산비 하락, 2009년 75% 이하로 떨어질 수도

〈표 3〉에서 보는 것과 같이 가임암소와 송아지 생산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송아지 생산두수의 추정치는 보통 가임암소의 75%로 추정하고 있는데 2007년도에 가임암소가 941천두이면 2008년도의 송아지 생산은 705천두로 계산할 수가 있다.

또한 2008년도의 가임암소(2008, 9월 현재) 1,034천두이니 2009년도에는 775천여두의 송아지가 생산될 것으로 추정이 된다.

그러나 최근 몇년간 송아지 가격 하락과 생산비에 미치지 못하는 시세 때문에 2009년도의 송아지 생산은 75%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송아지 생산 기대심리는 송아지 가격이다.

2007년도의 송아지 생산비가 2,142천원(경영비 1,171천원)이며 2008년도에는 사료가격 상승 등에 따라서 송아지 생산비가 25%이상 상승하게 될 것이다.

농가에서는 송아지 가격 안정 제도에 의하여 155만원 이하로 하락했을 때 차액을 보전해주는 있지만 생산비에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타산을 맞출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한우 사육농가에서 생산비를 절감하는 일은 값비싼 외국 사료로만 소를 키우기 보다는 조금 어렵겠지만 옥수수사료포를 만들거나 풀 사료를 재배하거나 논에 보리를 심는 등 자기의 지역에서 가장 알맞은 사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땀 흘리는 노력이 없이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것 같다.

따라서 최근에는 3~4산의 암소비육이 부족 많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인공수정용 정액도 2008년도에는 2007년도에 비해서 적게 판매될 것으로 보여 진다.

〈표 4〉 최근 한우등급 판정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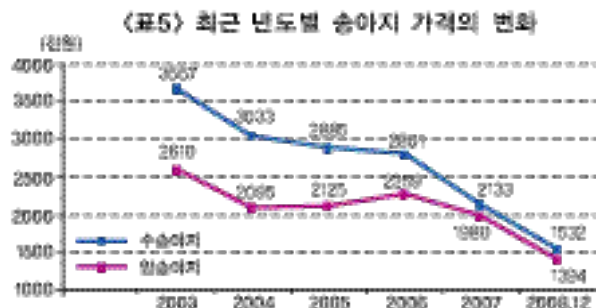
년 도	암 소	수 소	거 세	계
2007	211,661	110,542	169,912	492,115
비율(%)	43.0	22.5	34.5	100.0
2008	237,079	94,592	197,305	528,976
비율(%)	44.8	17.9	37.3	100.0

자료 : 축산물 등급 판정 인터넷자료 (2008, 12, 24)

## 가. 송아지 가격 동향

### 바닥찍고 서서히 상승할 것

2003년도를 정점으로 송아지 가격은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으며 2008년도를 저점으로 하여 향후에는 점차 회복될 가능성이 엿보인다.



송아지 가격은 2007년도 3월말 까지만 해도 높은 가격을 형성하였다. 그러나 2007년 4월 한·미 FTA 타



자료 : 축산 사이버 컨설팅 인터넷

지금도 한우 거세우를 비육하는 농가에서는 등급판정「B1+」이상만 판정을 받는다고 하면 번식우 경영이나 일반수소 비육하는 농가보다는 경영상 안정적인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경향은 미국산 냉장육이나 수입산이 들어와도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 향후 추진전략

한우산업을 둘러싼 여건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좋지 않은 상황에 있다. 그렇다고 무작정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소를 키우기 보다는 처해있는 여건아래에서 최선의 방안을 찾아보아야 할 것이며 합리적인 경영을 해야 만이 국내 및 국제 경쟁에서 싸워 이겨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 방안의 가장 큰 과제는 「생산성 향상」에 의한 수익 향상이며 「사료비절감」등에 의한 비준동의 시 한우의 경쟁력 제고 방안을 장·단기 전략을 수립해 놓고 있으며 한우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할 것이다.

### 가. 소 및 쇠고기 생산이력제도

2007년11월 「소 및 쇠고기 생산이력제도」가 법률로 제정되고 1년 동안 준비과정을 거친 다음 2008년 12월 22일부터 우선 소의 이력제도가 발효되었다.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쇠고기 판매제도가 불만·불신의 제도였다면 앞으로는 「한우가 한우로 팔리는 제도」가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며 태어나서부터 이동·도축·소비의 모든 과정을 소 1두마다 정확하게 기록·확인 하는 것을 법률로서 정해지는 중요한 제도이다.

아마도 최근 육우가격의 폭락은 이 제도와 ~12%범위의 육우고기는 유통·판매과정에서 한우고기로 둔갑 판매되었던 것을 부정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며 미국산 냉장수입고기도 이 대열에서 빠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우선 소에 대하여 이력제도를 실시한 후 6개월 이후에는 유통단계까지도 완벽하게 이 제도가 실시된다면 생산자와 생산지·도축·가공단계까지도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이며 이에 따른 소비자의 신뢰 확보와 함께 한우소비가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보여진다.

### 나. 한우판별제도

2009년부터 새롭게 실시하는 제도인데 이는 「전국한우협회」와 「한국종축개량협회」가 함께 실시하게 된다.

기존에는 한우와 한우가 아닌 것에 대한 판별이 「한우등록증명서」 「DNA판별에 의한 판별」 등이 있었으나 한우등록이 되지 않은 소에 대해서는 도축 시 단순히 모색으로 한우·육우·젓소 등으로 판정을 하지만 한우와 모색이 같은 외국품종의 「사우스스테본」 「리프진」 등이 생우로 수입될 경우나 샤로레 교잡종 등의 교잡우 등은 일반인들이 외모를 보고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이와 관련한 농·축협이나 숙련된 기술자에 의하여 이를 판별 하게 된다.

이제 2009년부터는 한우등록이 되지 못한 한우라도 한우로 판별되면 사육농가에서도 불이익이 없게 될 것이며 소비자들도 확실한 한우를 구매하여 먹게 될 것이다.

한우 생산이력제도에서도 품종 기록 란에 「한우판별요령」에 의거하여 품종을 기록하게 되기 때문에 이 두 제도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서 한우산업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 다. 한우브랜드 육성산업

한우는 년간 50여 만두(2007 : 492천두, 2008 : 550천두 예상) 도축된다. 2007년도에 한우 등급판정 비율을 보면 암소 43%, 수소 22.5% 거세우 34.5%이었다. 거세우중에서도 1등급이상 출현율이 70%라면 120천여 두 밖에 되지 않는다.

때문에 씨수소 후보, 싸움소 후보 등 특별한 목적으로



#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 홍천으로 한우 등록 출장을 오다.

1982년 4월쯤 되었을 때 강원도 홍천으로 처음 출장을 나왔습니다.

한국종축개량협회에 입사한지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협회에 한우등록과장(김동혁)께서는 직원 2명(이종헌: 현재 늘푸름한우 사업단장, 현재용: 춘천서 양돈업)을 이끌고 생전 처음 보는 강원도 홍천으로 현장출장을 데리고 온 것이었습니다.

계획상으로는 현장에서 3~4일간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당시 김 과장님께서 우리에게 교육은 하나절도 안 시키고 실전으로 내다몰았습니다.

나야 시골 농촌에서 자라면서 아버지가 가르치는 한우를 돌보고 풀도 베고하여 한우와는 가깝게 지냈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신입직원 두 명을 행하니 홍천에다 떨어 놓고 서울로 올라가시는 과장님이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하는 수 없이 과장님이 소개시켜준 하숙집에 여장을 풀고 한우등록을 다니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한우등록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었으며 인공수정도 별로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농림부에서는 인공수정의 장려와 함께 한우등록사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82년도에는 인공수정을 한소가 등록만 되면 내일아침에 송아지를 낳아도 사료를 10만원어치나 지급하였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사료 10포도 안 되는 돈이지만 그 당시만 하여도 사료 10만원어치면 경우기에 가득 싣고서도 몇 포는 남을 만큼 아주 많은 양이었으며 암소로 따지면 거의 1년 먹을 만큼의 식량이 되는 듯 하였습니다. 제가 찾고자 하는 사람은 아마도 홍천읍이나 화촌면 정도일 텐데 아무래도 홍천읍인 것 같습니다.

82년도 당시에는 사실 홍천읍이나 화촌면이나 소재지를 빼놓고는 크게 다른 것이 없었으니 말입니다.

당시에는 이 사업이 인기가 너무 좋아서 홍천군청에서 면단위별로 계획을 세우고 면사무소에서는 리·동별로 계획을 세워서 등록사업을 하는데 마을이장이 동네 확성기로 방송만 하면 동네근처의 마을 어귀에 구름떼처럼 소가 빨갭게 나왔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기소가 등록이 되지 않는다고 소를 끌고 군청에 와서 등록을 시켜달라고 행패를 부릴 지경이었습니다.

을 정도면 2살이 되었으니까 어림잡아서 계산을 해도 소의 나이가 32살이 되는 셈입니다.

그래도 송아지를 25마리나 낳고 앉아 있으니 살아 있는 것만 해도 기적 같은 일 이었습니다.

소 옆에 가만히 앉아서 보니 몸을 조금 움직일 때 마다 버걱버걱하는 뼈 부딪치는 소리가나고 이제는 일어날 수도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소 주인은 「어차피 새끼도 낳지 못하지만 동네사람 소들이 모두 다 등록하는데 나에게 아버지 같은 저 소에게 등록을 못하면 한이 될 것 같으니 명부라도 올려달라」 고 하였습니다.

직장 생활이 처음인지라 모든 일을 원칙대로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어차피 새끼를 낳지도 못할 텐데 저 소주인의 한이나 풀어주자고 하면서 소귀에 귀표는 달지도 못하고 서류상으로만 등록을 했습니다.

이제 「한국종축개량협회」 근무를 마치고 다시 「늘푸름 흥천한우 사업단」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으니 충북이 고향인 저에게 「흥천」은 의미가 다른 어떤 곳보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국내로서는 휴전선 밑에서부터 제주도 구석구석까지 안다닌 곳이 없이 두루 다녔는데 다시 흥천으로 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혹시라도 이런 분을 알고 계신 분이 있거나 본인이라면 꼭 한번 찾아뵙고 싶습니다.」

그 당시 나이로는 50세(여) 정도 되었으니 지금은 70세 이상이 되었겠지요?

그분이 은혜를 갚으려고 소의 묘지를 썼는지 안 썼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흥천에도 그런 한우가 있었다는 것도 확인하고 싶기도 하고 소를 길러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에게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며 30이 넘는 늙은 소를 잘 돌보는 그 농부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림: 농사의 신(소) 고구려고분벽회중 -6세기경)

2009년은 기축년(己丑年) 소의 해입니다.

소는 옛날부터 농사의 신으로 숭배를 받아왔으며 농사꾼에게는 없어서는 안되는 귀중한 생구(生口)이었지요.

살아서는 주인을 위하여 몸이 으스러지라 일하고 또 죽으면 고기와 가죽을 남겨 우리의 일상생활을 풍요롭게 하였습니다.

소를 사랑하고 은혜를 갚기를 생각한다면 우리 한우는 우리를 배반하지 않을 것이며 속 썩이는 자식보다도 더 나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글을 읽으신 분께서는 주변에 혹시 아는 분이 아닌 가 다시 한 번 생각해보시고 그 분도 아직까지 살아계셔서 다시 한번 만나 뵈면 참 반가울 것 같습니다.

- 늘푸름 흥천한우 사업단장 이종헌

## 효고현립(兵庫縣立) 다지마 목장 공원 방문

11월28일, 일본연수3일차인데 아침부터 비가 부슬부슬 내린다. 어제까지는 날씨가 좋아서 한국의 늦가을을 만끽하는 느낌이었으나 비가오니 기온이 낮아져 제대로 연수를 하지 못할까 걱정이 되었다.

우리가 방문했던 지역들은 강원도 홍천과 지형적으로 매우 유사한 곳이었다. 눈, 밭은 별로 보이지 않고 높은 산들속으로 기어들어가는 것이 홍천지역에서도 내촌면이나 내면으로 가는 기분이었다.

### 다지마 목장공원은

- 가족 유전자원 보류
- 체험관광
- 도·농 교류의 3가지 목적을 함께 이루기 위해 현(우리나라의 도·군 사이)에서 만들었으며 원장은 과장급(현청) 나머지는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청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곳이었다.

올라가는 곳은 굽이굽이 길이었으나 막상 목장 공원은 분지 같은 곳으로 앞에는 스키장이 보였고 사무실에 들어서니 일본 소에 대한 그림과 공원 전체를 설명할 수 있는 각종사진과 자료, 그림들이 많이 있었다.

1년에 약 20만명이 이곳을 방문하는데 주로 초등학교생의 교육을 목적으로 하며 가족단위가 많이 온다고 했다.

12월의 이벤트에는 '보다 빠른 크리스마스'를 하면서 500엔(약 8,000원)의 참가비를 받으며 50명 한정예약을 받고 우동 만들기, 크리스마스 케익 만들기(1,300엔)등 다양한 이벤트를 만들어서 목장을 활용하고 있었다.



아이들이 케익과 우동을 만드는 사진.

다지마목장 공워직워의 안내로 '다지마우 박물관' 을 들어갔다.

비록 규모는 작았지만 다지마우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잘 준비해 놓았는데 특히 다지마소의 조상이 한우라는것도 설명을 해 주었다.

일본인들이 여간해서는 이런 것을 밝히지 않는데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백제의 피가 아직도 남아 있는것이 아닐까?



다지마소의 그림.

다지마소는 뼈가 가늘고 뿔이 강하며 피부가 부드럽고 등, 허리가 평평하면서 거친 사료에 견디는 힘이 강하다는 이야기란다. (국우10도: 1310년정)



옛날 소와 함께 사람이 농사 지을때 사용하던 농기구 등.

작은 소박물관이지만 정갈하게 꾸며 놓은 모습이 앙증맞기만 하다. 우리나라에는 전국 어디를 둘러보아도 번듯한 소박물관이 없는 것이 못내 아쉬웠다.

